

예술로 완성하는 휴식...ACC 브런치 콘서트로 초대

ACC재단, 출연진 라인업 11개 공개

26일, 코리아콧 오케스트라 '빈 숲속의 이야기' 첫 무대

9월, 100회 특집 년버벌 아트퍼포먼스 '페인터즈' 출연

'브랜드리 뮤지컬 플레이리스트' 연말 캐롤 공연



5월 무대에 오르는 '블랙토 무용단' 공연 장면

예술을 통한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ACC 브런치 콘서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여행스케치, 서도밴드를 비롯해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킹스틴 루디스가 등이 출연해 왔다.

올해도 브런치 콘서트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안고 관객들을 찾아온다.

ACC재단은 최근 '코리아콧 오케스트라', '블랙토 무용단', '홍진호X고상자' 등 출연진 라인업을 발표하고 패키지 티켓 판매를 개시했다. 본 공연은 오는 2~7월, 9-11월(마지막 주 수요일)과 8월 20일,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총 11회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6일에는 새해를 여는 코리아콧 오케스트라 '빈 숲속의 이야기'가 준비돼 있다. 탄생 200주년을 맞은 슈트라우스 2세를 기념해 그의 작품과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들 노래를 듣는다.

오페레타 '집시남작' 중 '개선 행진곡'을 시작으로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엘가 '사랑의 인사', 슈트라우스 '관광열차 풀가'가 올려 퍼진다. 이외 임구수 '강 건너 봄이 오듯', 이홍렬 '꽃구름 속에' 등 한국 곡들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성혜, 테너 김민석을 비롯해 코리아콧 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이어지는 3월 26일에는 한용원 밴드와 유태평양의 컬래버 무대 '그루브 in 판소리'를 통해 판소리와 재즈의 만남을 모색한다. 이들은 판소리 고유의 서사와 개성에 다이나믹한 재즈 선율을 가미, 관객들에게 "뮤지컬을 보는 듯한 감각"을 선사한다.

소리꾼 유태평양은 1998년 여섯 살에 3시간 30분에 달하는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하며 '국악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용원은 2013, 2015년 네이버 뮤직 리더스플 '올해의 재즈 드러머' 부문에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ACC재단이 11회에 달하는 '브런치 콘서트' 연간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3월 출연하는 한용원 밴드X유태평양 컬래버 무대. (ACC재단 제공)

4월 30일에는 피아노와 스트링퀸텟 연주에 발레를 가미한 음악극 '오은철과 함께하는 Moments'가 펼쳐진다. 인디애나주립대에서 공부한 오씨는 2021년 JTBC '슈퍼밴드'에서 '크랙 실버'팀으로 참여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어 5월 28일 블랙토 무용단의 강렬한 댄스 콘서트 '블랙토 댄스 콘서트'가 상연된다. 검은 발레 슈즈를 뜻하는 블랙토는 모노톤의 흑백 대비와 역동적인 동선의 컨템퍼러리 안무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피아니스트 한지호가 선보이는 '별들의 연인들'은 6월 25일 관객들을 만난다.

예술칼럼니스트 전원경 해설로 듣는 뉴욕의 문화 예술 '재즈와 욕망의 도시, 뉴욕'은 7월 30일에, 스트링 체임버와 재즈 앙상블 협연인 '마리아 김 with Strings'는 8월 20일 무대화된다.

특히 9월 24일은 'ACC 브런치콘서트 100회 특집'으로 꾸러진다. 년버벌 아트퍼포먼스 '페인터즈'가 출연해 라이브 드로잉, 어반 댄스, 미디어 아트를 결합된

융합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 인물을 4명이 나눠서 그리거나, 멤버를 바꿔가며 한 작품을 이어서 드로잉하는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기대를 모은다. 이외 10월 29일 째의 '짚은 가을', 11월 26일 '홍진호X고상자의 텅고의 사계' 등이 준비돼 있다.

시리즈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17일은 연말 공연으로 기획, 반짝이는 불빛과 캐롤이 울려 퍼지는 '브랜드리 뮤지컬 플레이리스트'가 펼쳐진다. 성탄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 뮤지컬 넘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ACC재단 문화예술사업팀 심재민 담당은 "예술 다양성과 관객과의 소통 등에 초점을 두면서 입소문을 탄 'ACC 브런치 콘서트'가 올해에도 지역 관객들을 만난다"며 "올해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미술과 클래식, 국악과 재즈 등 장르 결합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했다"고 했다.

연간권 33만 원, 좌석 50석(1인 2매까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 신청하세요

시각예술·문학·음악·연극·영화 분야... 10일~3월 3일

남구 양림동에 자리한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아트폴리곤 등 다양한 창작·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을 예술 창작, 교류 플랫폼 등으로 새롭게 만든 레지던시 공간이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올해도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오는 10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분야는 시각예술,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이다. 지원서는 이메일 접수.

지원자는 포트폴리오(PDF 파일), 창작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작품 이미지를 비롯해 활동 실적(약력, 전시 포스터, 도록, 기사 등)을 담아야 하며 영상 작품은 스틸컷 표기를 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 17일 메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 작가는 거주 및 집

필 공간이 제공되며 매달 활동 지원비(제세공과금 별도)가 지원된다.(개인전 개최 시 재료비 일부도 지원).

지난 2021년부터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장으로 활용돼 온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예술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정현기 호랑가시나무대표는 "그동안 창작소는 주민을 위한 예술 교육은 물론 국내외 작가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왔다"며 "이번 입주작가 레지던시 또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문화적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문의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3기'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연말까지 활동할 '광주예술의전당 시민기자단 3기'를 14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및 공연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광주·전남 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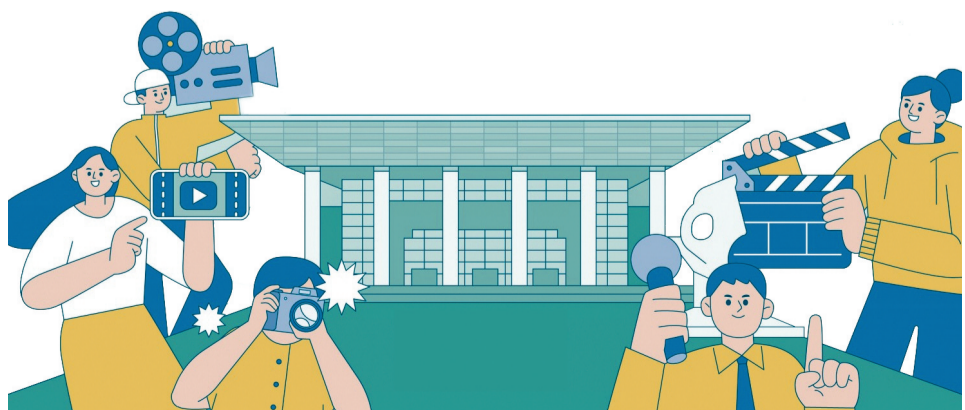
기자단은 글·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나눠 선발하며, 각각 전당 공식 블로그와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전시 등에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해야 하며 현장취재, 인터뷰, 홍보활동 등을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분야 및 게시

여부 따라 상이)와 함께 공연 관람기회 제공, 우수 기자 특별상 등 특전이 주어진다. 글·사진 분야 지원자는 문화예술 블로그 게시글 1건 이상, 영상 분야는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 2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 후 광주·전남 소재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윤영문 전당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올해에도 문화 소식통인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한 해 동안 다양한 공연과 문화 소식을 알리는 '알림이' 역할을 수행해, 시민과 소통하는 전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끝없는 '아시아의 바다' 증강현실로 탐색하다

ACC, 23일까지 공간 컴퓨팅 전시 '무진장(無盡藏) 아시아' 주제

해양이 없는 인류를 상상할 수 있을까.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해양,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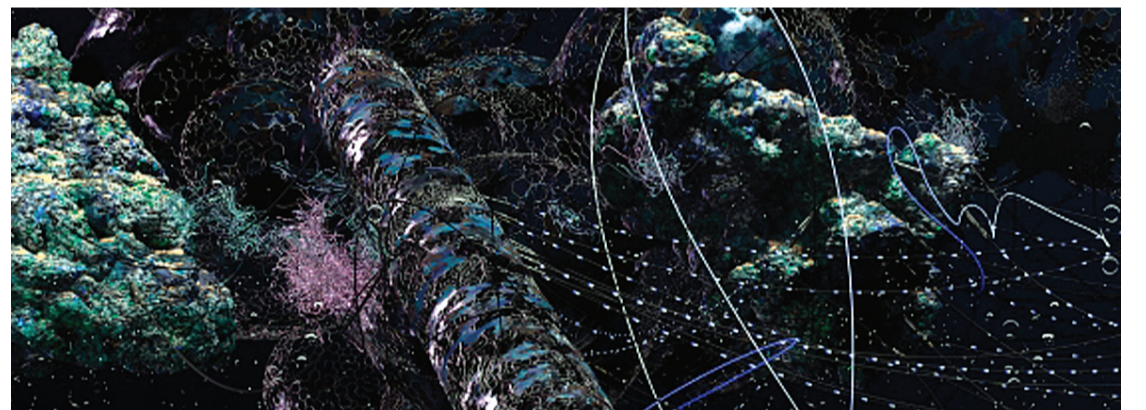
화면에 펼쳐진 '대양적 전회'(oceanic turn)는 인간이 '해양적 인간'으로 변모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닌 거북이, 고기, 배 등과 결속해 변화된 문명의 주체가 된다. 즉 인간은 타인 비생명체들과의 관계에서 재구성된다.

증강현실을 매개로 아시아 해양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공간 컴퓨팅 전시를 오는 23일까지 연다. ACC 복합전시 5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무진장(無盡藏) 아시아'.

사전적 의미의 '무진장'은 다함이 없는, 끝이 없음을 뜻한다. 그만큼 아시아 해양이 갖는 자원이나 생명, 역사, 문화로서의 바다가 깊고 넓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번 전시는 '공간 컴퓨팅 기술'을 활용 아시아의



'대양적 전회' (ACC 제공)

역사와 문화를 '해양'이라는 렌즈로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용장치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몰입형 증강 현실 세계로 진입한다.

전시는 '무진장 공간 컴퓨팅'과 '무진장 아카이브'로 구성돼 있다.

전자에서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눈앞의 디지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해양자원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연결고리를 찾는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

'무진장 아카이브'는 아시아 지중해를 소개한 신문

기사, 저서 등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관객들은 두 전시를 매개로 심해를 단순한 신비의 공간으로만 상상하지 않고 데이터와 환경이 연계되는 점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무진장 아시아'는 증강현실 등 디지털을 매개로 아시아의 바다를 다층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며 "아시아 바다의 풍부함, 신비, 연대의 가능성 등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달빛걸음 무료극장'에서 영화 한 편의 여유

14·28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모험과 판타지로 가득 찬 애니메이션부터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까지...

달빛걸음 무료극장에서 영화 한 편의 여유를 만끽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등이 '달빛걸음 무료극장'을 오는 14일, 28일 각각 오후 7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아트홀에서 펼친다.

먼저 14일에는 '몬스터하우스2-인버저블 피닉스'를 더빙 버전으로 선보인다. 전체 관람 가능하며 상영 시간 1시간 25분.

영화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나 열심히 집을 지키는 요정 '핀', 그와 달리 이웃사이더를 자처하는 '피닉'의 이야기를 다룬다. 새롭게 이사 오는 사람을 내쫓기에 바쁘던 어느 날, 범상치 않은 소녀 크리스틴 가족이 등장하면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감독은 '키코리키 시간여행', '천하무적 리코키

키' 등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데니스 체르노프가 맡았다.

지난해 개봉 이후 실 관객들에게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다"는 평이 이어진다.

아울러 28일에는 코미디물 '달짝지근해: 7510'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총 2시간 상영.

미각은 타고났지만 현실 감각은 없는 제과 연구원 '치호'는 어느 날 직진밖에 모르는 긍정 마인드 일영을 만난다. 게다가 염치 없는 형 '석호'와 자아도취에 빠진 제과 회사 사장 '병훈', 과몰입러 '은숙'까지 다양한 인물 군상과 엮이면서 치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작품은 2023년 개봉 당시 138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제8회 춘사국제영화제에서는 감독부문-배우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몬스터하우스2-인버저블 피닉스'



'달짝지근해: 7510'